



PC통신 빠른 속도로 명성 나우콤

하이텔, 천리안과 같은 대형 PC통신업체를
긴장시키면서 급성장한 나우콤은
명실상부 PC통신업체의 트로이카시대에 합류했다.
제3세대의 통신망 K3로 명성을 얻은 나우콤은 이번에
우수한 기술을 덧붙인 K4를 내놓아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기존의
통신업체보다
통신속도를 빠르게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나우콤중앙연구소의 박원영소장.

한국통신의 하이텔, 데이콤의 천리안과 같은 대형 PC통신업체를 바짝 긴장시키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나우콤(대표: 강창훈)은 '속도'로 승부를 걸고 있는 PC통신업계의 샛별이다. "기존의 하이텔과 천리안이 방대한 DB로 이미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다면 우린 속도라는 야심찬 전략으로 기존 통신업체의 틈새를 공략해 오히려 PC통신의 발전 방향을 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나우콤중앙연

구소의 박원영소장은 말한다.

최근 대학생들과 컴퓨터 메니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우콤은 이미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은 PC통신에 가입했던 사용자들이 그들의 불만족스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나우콤에 가입할만큼 이미 나우콤은 소비자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찔른 기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통신속도의 문제점 풀어

나우콤은 인지도와 규모면에서 기존업체와 대적하지 못할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 처음부터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이미 서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우콤은 남들이 99% 안된다고 하는 사업에 1%의 가능성만으로 사활을 걸어 먼저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통신속도의 문제였다. 하이텔의 K2와 그 전신인 케텔의 K1에 이어 제3세대 통신망이란 뜻에서 K3로 명명된 새로운 개념의 이 PC통신이, PC통신 시장을 강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단지 '빠르다'란 이유에서였다면 믿겠냐고 박소장은 반문한다.

K3가 개발될 당시 한국통신에서 전국의 모뎀속도를 9천6백BPS(1초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자료의 양)로 하려 했으니 나우콤의 K3 모뎀속도 1만4천4백BPS의 고속모뎀 서비스야말로 정부의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흔든 빅이벤트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한다. 사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 국민의 기질로 봐서도 그렇고 PC통신 사용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도 바로 답답할 정도로 느린 통신속도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건 나우콤의 기술개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나우콤의 빠르다라는 소문은 PC통신 이용자에게 급속히 번져, 94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10월 유료 화서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1년동안 나우콤은 명실상부 PC통신업체의 트로이카시대에 합류한 것이다.

속도의 강점 외에도 K3는 접속의 어려움 해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통신망으로 접속하기 위해선 접속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는 PC통신 이용자가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전화회선의 수를 말한다. 기존의 PC통신업체

의 접속포트당 이용인원이 35명에서 40명이라면 K3는 이 숫자를 15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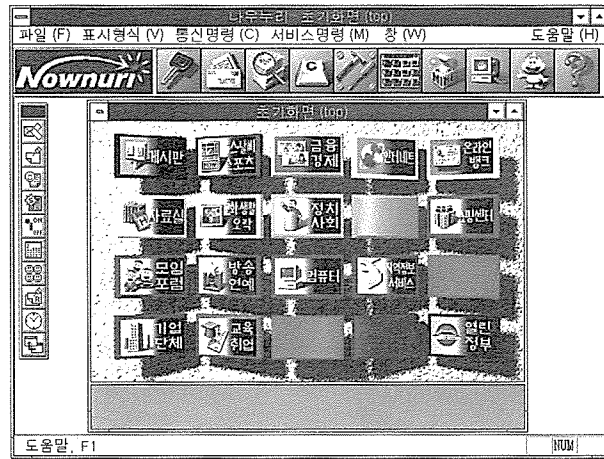
우수성능 붙여 'K4' 개발

이외에도 K3는 현재 이야기와 같은 범용 애플레이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하이텔과는 달리 K3전용 애플레이터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나우콤은 개발의 고삐를 여기서 늦추지 않고 K3의 기능에 몇개의 우수한 기능을 덧붙인 K4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K4는 K3의 기능 외에 멀티세션화가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기능으로도 정지화상과 동화상 그리고 사운드가 바로바로되는 기능이 첨가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하고도 바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나우콤측에선 벌써부터 제2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통신만족도" 1위 자신

한편 PC통신이면 다같은 PC통신이지 하이텔은 뭐고, 천리안은 뭐고 나우콤은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우콤의 박소장은 이렇게 답변한다고 한다. DB양으로 보면 천리안이 1위고 하이텔이 2위, 나우콤은 3위나 사용료로 치자면 나우콤이 1위라는데 다르다. 가입자수만 보더라도 천리안은 24만이고 하이텔은 17만, 나우콤은 이제 겨우 9만이니, 숫자가 밀해주듯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현저하지만, 실제로 통신가 입자들이 느끼는 통신 만족도에선 나우콤이 단연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 기존의 PC통신, 인터넷 그리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K4'. 정보통신 플랫폼의 애플레이터인 NowRo 2.0의 초기화면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박소장은 나우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능면에서 전문메니아에게 가장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화면표시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PC통신은 젊은이들의 대화방이나 홈쇼핑, 각종 예약기능으로 이용되기 시작해 이제는 가입자수가 50만명을 넘어 그 숫자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으나 아직도 이런 정보 서비스는 그냥 썩히기가 일쑤고 예약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표딱지라도 하나 얻어오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 보급이 뭐 필요하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오늘도 어제와 다르게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신문의 TV프로그램만도 각종 민영방송의 출현으로 한쪽이 족히 넘는 분량이니 내가 원하는 영화가 몇시에 어느 채널에서 하는지를 찾으려고 해도 지루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시기는 실지로 불과 2~3년 안에 온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PC통신의 방

법론적인 문제인데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일부 젊은 층에서도 컴퓨터 기피증이 있어 컴퓨터와 마주 앉기를 꺼리며 아직 컴퓨터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엔 다소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비의 대중화에 앞장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신문을 구독하

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잡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PC통신을 신청하는 단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PC통신이 컴퓨터 매체라는 개념에 국한되지 않도록 장비의 단순화와 대중화에 나우콤이 앞장설 것이라 한다. 그래서 쌍방향통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PC통신의 2천만 가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에도 도전해 볼 것이라 한다.

우선 내년에 가입자를 30만명으로 잡을 정도로 의욕에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나우콤은 과연 PC통신업체답게 사원모집의 이력서까지 PC통신으로 접수할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모기업에 판매까지 하였다.

PC통신의 생활화가 정착되면 바야흐로 PC통신이라는 정보통신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고 박소장은 말한다. 이처럼 바람직한 정보혁명을 위해 뭉쳤다는 나우콤의 박소장은 지금은 적자일망정 내일을 위한 개발은 늦추지 않을 작정이라고 피력한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